

KOREAN DIAKONIA
ANNUAL REPORT

한국교회봉사단
연차보고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월드디아코니아

2018
18.01 - 18.12



..... 한국교회봉사단 소개

한국교회봉사단(KD)은 선교 초기부터 이 땅에 병원과 학교 그리고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설립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온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KD는 15개 교단에 속한 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 연합기관입니다. KD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2002년 창립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를 모태로 하여 2007년 12월 서해안 앞바다의 원유유출 사고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로하는 80만 한국교회 자원봉사자의 섬김이로 태동되었습니다.

2008년 미얀마 사이클론, 중국 스촨성 지진, 2009년 필리핀 수해, 인도네시아 지진,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일본 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2015년 네팔 지진, 2016년 에콰도르 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의 재난 구호와 용산참사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등의 지원 및 중재, 그리고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6년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혹은 교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섬김의 사역을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로 엮어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자”는 기치아래 설립된 KD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등록)와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 (외교부 등록)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NTENTS

- 02 2018 하이라이트
- 04 2018 한국교회봉사단 조직
- 05 국내사업
 - 1. 소외계층 지원사업
 -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설날 사랑나눔
 -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추석 사랑나눔
 -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성탄 사랑나눔
 - 돈의동 쪽방촌 해뜨는 주민 사랑방 지원
 - 2.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
 - 3. 희귀난치성질환(엔젤만신드롬) 가족캠프
- 12 해외사업
 - 1.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구호
 - 2. 인도네시아 팔루 지진구호
 - 3. 라오스 수재민 구호
 - 4. 캄보디아 희망도서관 프로젝트
 - 5. 아이티 직업학교 운영
- 16 북한사업
 -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 18 연대사업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전국재해구호협회
 - 한국교회총연합
- 20 재정보고
- 21 언론에 비친 한국교회봉사단

2018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월드디아코니아 2018년 정기총회

| 장 소 | CCMM빌딩 12층



2018년 하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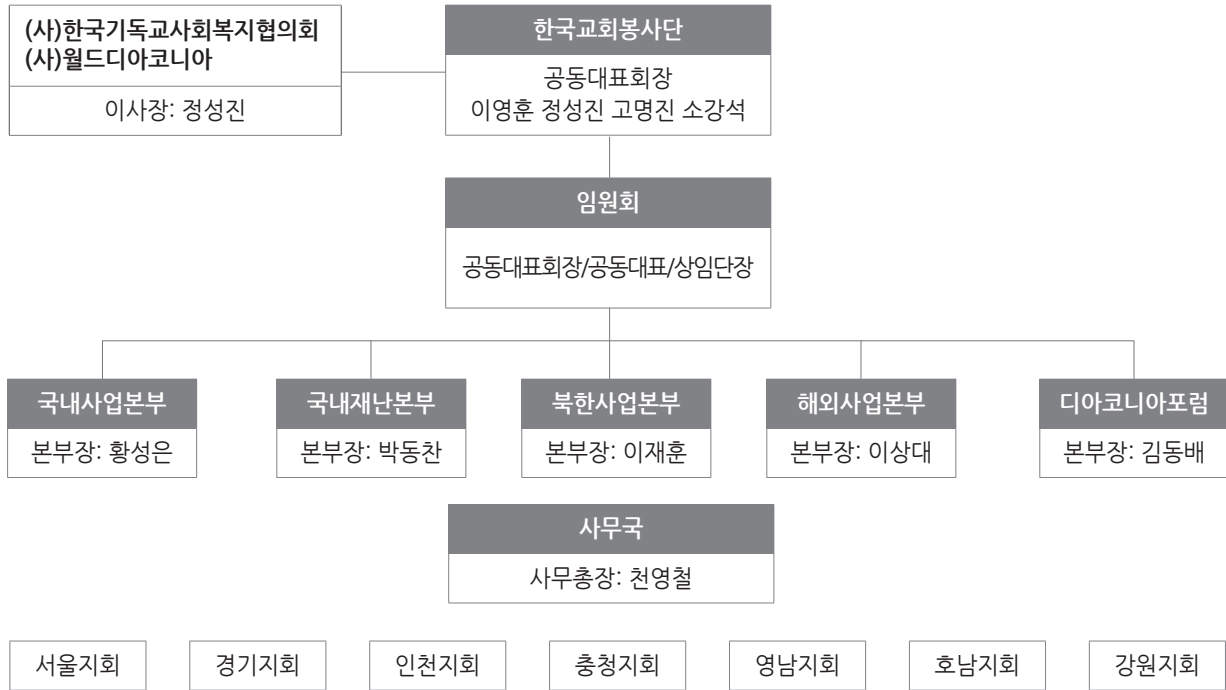
한해 동안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한국교회봉사단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 1 정기총회
- 2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18 설날 사랑나눔
- 3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18 추석 사랑나눔
- 4 돈의동 쪽방촌 주민 공동체 지원
- 5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
- 6 희귀난치성질환(엔젤만신드롬) 가족캠프 지원
- 7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피해 구호
- 8 라오스 댐수해 이재민 구호
- 9 인도네시아 팔루 지진 및 쓰나미 이재민 구호
- 10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성탄절 사랑잔치1
- 11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성탄절 사랑잔치2
- 12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 13 캄보디아 어린이 교육
- 14 아이티 직업학교 운영1
- 15 아이티 직업학교 운영2

2018 한국교회봉사단 조직

한국교회봉사단(KOREAN DIAKONIA) 조직도



임직원 명단

고문	김경원 박경조 박종삼 박종화 신경하 이정익 장중현 장차남 조성기 최희범(상임)
명예회장	김삼환 손인웅 오정현
공동대표회장	이영훈 정성진 고명진 소강석
공동대표	오경호 김봉준 양병희 유만석 윤성원 신상현 권태진 박성민
상임단장	황성은(국내사업본부장) 박동찬(국내재난본부장) 이재훈(북한사업본부장) 이상대(해외사업본부장, 회계) 박철규(서기) 김문훈 김동배(디아코니아포럼)
중앙위원	길성운 김인기 김종준 김준수 모상련 박명배 박성규 옥성석 이문희 이상화 이승희 정영교 최중천 홍문수 (합동) 김만준 김영걸 김영철 김운성 김종생 김한호 박영철 배성식 신광호 심영섭 이상학 장경덕 최영태 (통합) 곽주한 김병삼 김상현 방원철 서철 서호석 유기성 주성민 지성래(기감) 김명현 신성남 정재우 최길학 함덕기(기하성) 문강원 박경배 박응순 이규환 임영섭 조한권 (대신) 김중용 박순영 서도형 성창용 윤창용 이기용 조원근 지형은 (기성) 김근중 김호민 박상완 박정근 박창환 안희묵 윤재철 정승룡 (기침) 김철봉 박홍철 이종관 정현구 최한주 (고신) 김원광 박삼열 이주형 이철호 장덕만 (합신) 강준모 권오륜 박유철 육순중 장빈 최홍규 (기장) 최일도 허기복 김원일 (단체)
감사	김옥현 박홍자
사무총장	천영철

KOREAN DIAKONIA **ANNUAL REPORT**

국내사업

한국교회가 함께 하는 2018 설날 사랑나눔

한국교회봉사단은 설명절을 맞아 지난 2월 14일(수)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을 찾아 '설날 쪽방촌 명절 선물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교봉 회원교회들이 성금을 모으고 고양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진행했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명절 선물인 한과 상자를 들고 쪽방촌 골목골목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따뜻한 새해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유민주(26.여) 청년은 "생각보다 열악한 쪽방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을 보니 안타깝다"면서 "다음 명절에도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교봉은 한과 700세트를 명절선물로 준비해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이에 앞서 13일(화)에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주민사랑방을 찾아 명절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하는 2018 추석 사랑나눔

한국교회봉사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함께 사랑이 담긴 명절 도시락을 나누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9월 21일(금) 오후 3시 서울시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을 찾아 거룩한빛 광성교회와 은평교회가 파견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이 담긴 도시락과 명절 선물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날 최기학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과 정성진 한국교회봉사단 공동대표회장은 병상에 있는 주민을 찾아 위로하고 소정의 병원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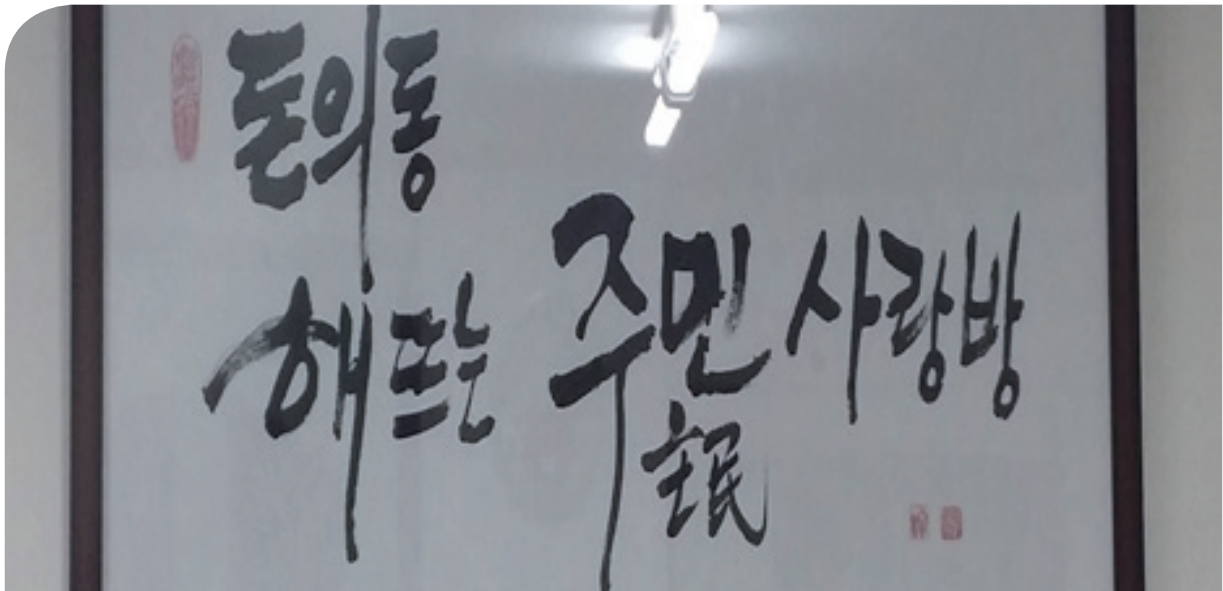
한국교회가 함께 하는 2018 성탄 사랑나눔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성탄절을 맞아 12월 19일(수)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2018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동자동 성민교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거룩한빛 광성교회 공연팀에서 개그맨 출신 최형만 전도사의 사회로 사물놀이(하늘풍물소리), 국악찬양(참좋았더라), 가요노래교실 등의 공연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성복 목사는 인사말에서 "사랑은 느끼는 것이고 주는 것인데 오늘 성탄절 사랑나눔 잔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교봉 공동대표회장 정성진 목사는 "2018년 성탄절에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 동자동에 오실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경기로 인해 예년에 비해 쪽방촌을 찾는 도움이 손길들이 줄어들어 이날 행사는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300여 좌석을 꽉 메웠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에는 한교총과 한교봉에 소속된 10여명의 목사들이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성탄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동자동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지역으로, 약 1,200세대의 주민들이 1평 정도의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교봉은 매년 설날, 추석, 성탄절 등 절기를 맞아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함께 하는 나눔 행사를 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의동 쪽방촌 해뜨는 주민 사랑방 지원

한국교회봉사단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민의 자립과 협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의동 해뜨는 주민 사랑방」은 돈의동 주민들의 삶의 생존권과 복지문제 해결,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목소리 내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절기마다 주민들을 위한 선물을 전달하고 정기적인 후원으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

한국교회봉사단은 6월 22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2회 디아코니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준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학회장)는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 예방합동,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등 국내 11개 주요 교단의 사회복지시설,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55개와 개 교회가 설립 사회복지법인 24개의 운영 사례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발제 이후 디아코니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배 명예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양혜원 교수(충신대 사회복지학과)는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은 다른 무엇보다 종사자 내지 사역자들의 영성에 바탕을 둔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우 목사(지구촌교회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교회, 기독교기관, 민간 및 공공 기관, 사회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천 목사(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무총장)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지공동체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엔젤만신드롬) 가족캠프

한국교회봉사단은 2014년 엔젤만 환우가족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이후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 엔젤만 가족캠프를 지원하여 환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비타민을 제공하였습니다.



KOREAN DIAKONIA **ANNUAL REPORT**

해외사업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구호

한국교회봉사단은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발생한 진도규모 7.0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긴급 구호하고 현지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8월 9~12일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피해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사망자는 140명, 중상자도 200명 이상 정도였지만, 이후 강한 여진이 잇따르면서 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3,688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으며, 8월 9일 6.2 강진이 또 일어나 최대 피해를 입은 방사르항 주변을 비롯해 북쪽 롬복지역에서는 건물의 100%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실사단은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 라면, 설탕, 식용유 등 구호물자를 현지에서 구입해 우선 긴급지원 했으며, 피해 현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사역자들과 구호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교봉은 인도네시아 한인선교협의회(회장:이명호 선교사)와 함께 롬복지진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이인 의 선교사)를 구성해 효율적인 구호를 위해 공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 지진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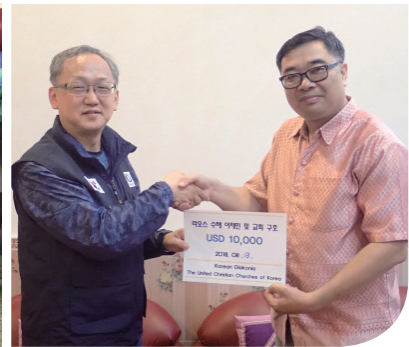
한국교회봉사단은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인도네시아 팔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구호하고 현지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사단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 진도 7.5의 강진이 닥친 것은 9월 28일, 약 7,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퇴적층이나 모래흙으로 형성된 지역에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 물이 들어와 땅이 액체와 같은 성질을 띠게 되는 지진 액상화 현상으로 땅이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아 사망자 수는 물론 정확한 실종자 수 파악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실사단은 지진 및 쓰나미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돌아보고, 팔루시내에서 남쪽으로 35 km 가량 떨어진 스망기 마을을 찾아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골 오지에 있어 정부의 손길이 닿질 않는 곳이다. 실사단은 1톤 분량의 쌀과 라면, 식용유, 소금, 설탕을 담은 구호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라오스 수재민 구호

한국교회봉사단은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지난달 발생한 댐 붕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고 피해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실사단을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실사단은 13일(월) 라오스 현지교회인 라오스복음교회 총회(LEC)를 방문해 캄땡 코운타판야 부총회장을 만나 긴급구호금 1만 달러를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EC는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취사도구, 식량, 구급약품, 담요 등의 구호품을 구입하는데 구호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사단은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LEC 총회본부의 아파야마스 목사와 박00 한인선교사와 함께 아타푸 수해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는 폭우로 사고지역인 사남사이 지역으로 통하는 다리 2개가 침수되어 통행이 끊겼고, 아타푸 시내 역시 인근에 위치한 댐의 추가방류로 홍수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90여명에 달하는 실종자 수색작업이나 구호품 전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사단이 방문한 짬타중고등학교에는 이재민 200여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수해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8개 대피소에 7천 명 가량의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7월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하면서 총 13개 마을 2천717 가구, 1만3천67명이 홍수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피해가 집중된 6개 마을의 1천611가구 7천95명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희망 도서관 프로젝트

한국교회봉사단은 캄보디아 공립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도서를 보급하는 한편, 열악한 지역에는 도서관을 설립하고 독서 지도 및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한해 동안 20여개의 초등학교에 어린이 도서와 지구본 등 기자재, 어린이 성경, 성경동화, 책장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독서지도법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이티 직업학교 운영

한국교회봉사단이 2016년 3월 10일 아이티 캄아이티앵 인근 카라콜 산업단지 내에 설립한 '아이티 직업학교(KHPS=Korean Haitian Professional School)'에서는 2018년 컴퓨터와 영어학과에 매학기 200여명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유치원 과정을 유치하여 60여명의 어린이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에도 힘써 직업학교 내 예배실은 현지인들이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의 결혼식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 주말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신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현지 직업학교에 비해 양질의 교육시설과 교사를 확보한 직업학교는 명실상부한 아이티 최고의 직업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OREAN DIAKONIA **ANNUAL REPORT**

북한사업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

한국교회봉사단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공식협력기관으로 WFP평양사무소와 협력하여 북한 5개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영유아들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북한의 5세미만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이며, 10명 중 4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KOREAN DIAKONIA **ANNUAL REPORT**

연대사업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손인웅 명예회장이 2018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2016년 창립, 대한적십자사와 <재난대응을 위한 협약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한국교회봉사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원불교봉공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3년부터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을 통해 캄보디아에 봉사단원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정회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국교회봉사단 손인웅 명예회장이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봉사단은 2018년 한국교회총연합과 MOU를 맺고 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보고

한국교회봉사단이 2018년 한해동안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재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등록)와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 (외교부 등록)로 구성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회원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업 전반에 책무성을 토대로 더욱 전문적이고 성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회원님들의 뜻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2월 결산

수입

구분	2018년 1월~12월 결산(원)	내용	구성비
회비	133,010,000	임원 및 회원정기회비	49%
기부금/후원금	115,870,770	사업지원기부금, 후원금	43%
기타수입	22,187,083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선납세금환급금, 예수금 등	8%
합계	271,067,853	합계	100%

지출

구분	2018년 1월~12월 결산(원)	내용	구성비
국내사업비	90,644,646	사회복지, 자원봉사, 연대사업 등	23%
해외사업비	66,656,906	긴급구호, 재해구호, 교육사업 등	17%
사업운영관리비	24,833,000	사업진행운영관리비 등	6%
행정비	202,717,752	퇴직금, 인건비, 운영비, 사무비 등	50%
기타지출	17,672,095	선납법인세, 예수금, 미지급금 등	4%
합계	402,524,399	합계	100%

KOREAN DIAKONIA ANNUAL REPORT

**언론에 비친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 설 맞이 나눔 현장 "사랑이 필요한 곳에..."

조준만, 최상경 기자

등록일:2018-02-14 18:54:26 | 수정일:2018-07-10 19:58:55

한국교회봉사단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교봉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거룩한빛광성교회(정성진 목사) 청년부 20여 명이 참여해 외로운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등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교봉이 설날을 맞이해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데일리굿뉴스

쪽방촌에 스며든 온정의 손길...명절 선물 건네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거리. 즐비한 고층 빌딩 숲 사이를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세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 모든 것이 낡고 오래된 동네가 나타난다. 어지럽게 엮여 있는 전신주들과 허름한 찻빛골목 사이로 가파른 계단이 눈에 들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동자동 쪽방촌'이라 부른다.

설을 맞아 이곳 쪽방촌에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들이 방문했다. 동자동 성민교회에 모인 청년들은 한국교회봉사단 조끼를 맞춰 입고 선물을 포장하고 박스를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설 명절에 맞게 '한과'가 정성스레 준비됐다. 포장작업이 얼추 마무리되자 청년들은 노란조끼를 갖춰 입은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흩어졌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굳게 닫힌 문이 꼼짝을 안하자, 안내를 맡은 봉사자가 "선물 드리려고 왔습니다 해!"라며 훈수를 둔다. 문이 뻐 꼼 열리자 컴컴한 복도가 환해졌다. 선물을 받아 든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흐느끼듯 건넸다. 그리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아무데도 못 가...다리가 아파서...찾아줘서 고마워" 이 말을 하곤 눈물을 쏟았다. 청년 봉사자들은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손을 잡아드렸다.

봉사에 참여한 신소영 청년은 "예전에 쪽방촌 봉사를 갔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그 모습이 눈에 밟혀 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주민 분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에 처음 봉사에 참여했다는 권희성 청년은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 많이 놀랐다. 그래도 먼저 내민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셔서 감사했고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 "힘내세요 한국교회가 함께 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들이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굿뉴스

"쪽방촌 사람들과 웃고 즐겼더니...마음을 열었어요"

좁은 단칸방이 뻐뻐히 늘어져 있는 곳에 저마다 고되고 아픈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그리고 굳게 입을 닫고 문도 닫았다. 그랬던 곳에 사람 냄새 나는 훈풍이 불었다.

동자동 쪽방촌에 정다운 분위기가 형성된 건 최근 10년 사이 일궈진 변화다. 2008년 6월 3평 남짓한 사랑방이 문을 열며 쪽방촌에도 마을공동체라는 새로운 바람이 일었다.

굽이진 골목길 사이 자리한 '동자동 사랑방'은 공간 자체만으로 친근감이 훨씬 전해졌다. 이심전심 비슷한 사연들은 서로의 마음을 연결시켜줬다. 사랑방이 생기기 전에는 이웃들이 만나지도 않았지만, 공공의 공간이 생기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쪽방촌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는 사랑방은 개방과 동시에 마을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

한교봉과 성민교회는 이러한 점에 주목했다. 빈곤층 주거밀집지역에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절망형 은둔자를 세상으로 불러낼 수 있고, 텅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한교봉은 7년 전 쪽방촌 중앙에 위치한 성민교회와 손 잡고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다니며 먹을 거리를 전달하는 반찬나눔 사역을 시작했다.

또한 성탄절, 신년 등 굵직한 명절과 기념일엔 공연과 선물 등을 준비해 좀처럼 문 밖을 나서길 꺼려하는 쪽방촌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그들의 어깨와 나란히 했다. 그토록 원했던 주민들 간의 친교관계 형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한교봉 사무총장 천영철 목사는 "교단을 초월한 개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쪽방촌의 소외이웃을 돕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낮은 자리를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고 한마음으로 동참한다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어려운 현장에는 소망의 불씨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설을 맞아 한국교회가 하나돼 선한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공동취재=조준만 최상경 기자)

한국교회봉사단 공동대표회장에 이영훈 목사 등

기사입력 2018/05/23 09:27 송고



한국교회봉사단 2018년 정기총회 [한국교회봉사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중훈 기자 = 개신교계 연합 봉사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을 새로운 공동대표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교봉은 지난 21일 이사회 및 2018년 총회를 열고 이영훈 목사,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소강석 목사(새예덴교회)를 공동대표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산하에 국내사업본부, 국내재난본부, 북한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디아코니아포럼 등 5개 기구를 설립해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하 법인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와 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은 공동대표회장에 선임된 정성진 목사가 맡는다.

총회에 앞서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교회 연합사업과 사회적 성금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의 성장 이면에 자리 잡은 물질주의와 교권 다름 그리고 분열은 우리 시대 기독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한국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기독聯, 지진피해 교회에 1억 4,000만 원 전달

신동선 교회기자(한동 UBF) | 등록일:2018-05-28 11:09:59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가 지난 5월 23일 포항동부교회에서 지진피해교회 위로기도회 및 성금전달식을 가졌다.©데일리굿뉴스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가 지난 5월 23일 포항동부교회에서 지진피해교회 위로기도회 및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포기연은 이날 낮 12시 포항동부교회 4층 프라미스홀에서 포항 지진피해를 입은 122개 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해 위로기도회를 진행한 데 이어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금 1억 3,500만 원을 전달했다.

조근식 목사는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해 위로기도회 및 성금전달식 열 수 있어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금을 보내준 교회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걸 수석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경건예배는 찬송, 김찬유 목사(서기)의 기도, 성경봉독, 박석진 목사(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의 설교, 포항지역과 지진피해 교회를 위한 합심기도, 공병의 목사(전 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성금전달식은 유원식 목사(상임총무)의 사회, 조근식 목사(회장)의 인사, 감사패 증정, 이강덕 포항시장·박승호 전 시장·장두옥 경북도의회 부의장의 인사, 122개 교회에 성금전달, 한중석 장로(부회장)의 오찬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봉사단과 권대희 포항CBS 본부장, 정운백 CTS 포항방송 이사장에게 전달됐다.

“교회의 공적 봉사, 공공민간과도 협업 필요”

사회복지시설 전망과 과제·한교봉, 디아코니아포럼

입력 2018-06-25 00:00



정성진 한국교회봉사단 공동대표회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디아코니아포럼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 왼쪽부터 김동배 디아코니아포럼 대표, 이준우(강남대) 양혜원(충신대) 교수, 이정우 지구촌교회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송지수 인턴기자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에도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디아코니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공신학’ 관점에서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들을 들여다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국내 11개 주요 교단 산하 사회복지시설과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55곳, 개교회가 설립한 복지법인 24곳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포럼은 한국교회봉사단(공동대표회장 이영훈 정성진 고명진 소강석 목사)에서 주최했다.

이 교수는 공공신학에 대해 “특정한 신조나 신앙고백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지니는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신학”이라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준거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배경과 목표, 내용과 평가라는 네 가지 각도로 바라봤다. 그는 “공공선이란 너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사회복지의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원칙은 있으나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궁극적 목적을 목회의 성공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예배와 기도, 찬양 등 종교행위가 사업 내용에 부분적으로 포함될 경우가 많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행위를 일반 사회복지와의 차별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드러나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으로 이용자들에게 일어나는 질적 변화를 관찰하는 평가 시스템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지구촌교회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의 영향인지 한국교회는 봉사를 알리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개별적 봉사는 감춰야겠지만 공적으로 하는 봉사라면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공공·민간과도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한교봉·한교총, 인도네시아 지진과 라오스 수해 이재민 지원 나서

윤인경(ikfree12@naver.com)

등록일:2018-08-10 13:11:40 | 수정일:2018-08-10 18:21:07



▲한교봉·한교총이 파견한 실사단은 인도네시아 롬복섬을 거쳐 라오스를 방문해 현지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라오스 현지 방문해 긴급지원 펼칠 계획”

한국교회봉사단(이영훈·정성진·고명진·소강석 공동대표, 이하 한교봉)이 한국교회총연합(전계한·최기학·전명구·이영훈 공동대표, 이하 한교총)과 함께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 피해 이재민을 긴급구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피해 실사단은 9일 현지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파견됐다.

인도네시아 롬복섬은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140여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최대 피해 지역인 방사르 항 주변을 비롯한 북(北) 롬복 지역의 건물 70%가 무너지거나 손상됐다.

실사단은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 방수포, 담요, 세면도구, 식수 등 구호물자를 현지에서 구입해 긴급 지원하고 향후 구호활동의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실사단은 롬복섬을 거쳐 12일부터 17일까지 지난달 발생한 댐 붕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고 피해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다. 라오스 현지교회인 라오스복음교회총회(LEC)와 협력하여 이재민과 피해교회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라오스는 지난달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하면서 인근 6개 마을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 주민 19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실종됐고 이재민은 1만 6256명에 이른다.

폭우로 길 끊긴 라오스 이재민 캠프, 긴급구호 군사작전 방불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라오스 수해 현장을 가다

입력 2018-08-22 00:01



독일 선교사들이 사륜구동 차량을 바지선에 싣고 라오스 아타푸주 뵐등 마을로 이동하고 있다.



천영철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이 현지 구호단체 관계자와 비를 맞으며 대화하고 있다.



아타푸주 초입에 있는 '후웨이 허 댐' 인근 산이 산사태로 무너진 모습.



감영 코운타판야 부총회장



장창일 기자

"라오스군에 헬리콥터를 요청해 구호물자를 싣고 들어가는 방법과 소형 보트를 이용하는 방법 모두를 알아봅시다. 1만여명이 있는 세남노이 이재민 캠프에 구호물자를 전달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라오스 남부 아타푸주의 한 마을에 모인 한국인 선교사와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사업가 등은 폭우로 길이 끊겨 고립된 세남노이 이재민 캠프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방법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된 직후 이재민 구호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꾸리는 등 파송 교단·단체의 벽을 넘어 협력하고 있다. 평소 현지 교회와 교류·협력,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스포츠 등으로 제각각 활동해 오다 큰 재난 앞에 힘을 모은 것이다. 라오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재난 현장과 외부에서 오는 도움의 손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적임자들이다.

이재민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은 '맞춤형 구호품'을 마련했다. '생선간장'과 '세탁기'가 대표적이다. 아타푸주에서 사역하는 A선교사는 "외부에서 구호물자가 많이 들어가도 이분들이 평소 먹던 음식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국인들에게 스파게티나 피자 같은 음식을 긴급 공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세남노이 이재민 캠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선간장을 공수해 구호품에 넣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이 간장만 있어도 식사를 할 정도로 좋아한다"면서 "실제로 이재민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탁기 20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B선교사는 "모든 게 부족한 이재민 캠프에서 세탁까지 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특히 이재민들이 대 붕괴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물가에 가는 걸 꺼리다 보니 빨래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선교사들이 세탁기를 마련해 대신 빨래를 해 주기로 했다"면서 "세탁기를 준비하는 대로 현장에 갖고 갈 예정"이라고 했다.

댐이 붕괴된 후 고립된 아타푸주 뵐동 마을엔 지난 14일 독일 선교사들이 달려갔다. 이 마을엔 278명이 머물고 있다. 선교단체 SFE 소속 선교사들은 사륜구동 차량에 구호물자를 가득 싣고 바지선을 띄워 뵐동으로 가 '긴급 심방'을 마쳤다.

라오스의 유일한 개신교단인 라오스복음교회(LEC) 총회는 이재민 캠프에 우물을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회 관계자는 "댐 붕괴와 폭우로 사방에 물이 넘쳐나지만 마실 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500ml 생수 세 통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최소 2년간 계속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우물 파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국 선교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 뜻 가지를 당부했다. C선교사는 "최근 세남노이 캠프에 한 개신교 단체가 방문했는데 매우 자극적인 선교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걸어 문제 된 일이 있었다"면서 "현장을 모르고 왔더라도 활동하기 전엔 선교사들과 상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D선교사도 "큰 재난을 겪었지만 중앙정부의 통제권 아래 있는데다 라오스는 무엇보다 공산주의 국가"라면서 "상황에 따라 심각한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현지 선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한 뒤 봉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타푸주를 방문한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실사단은 지난 13일 1차 구호금 1만 달러(1129만원)를 LEC 총회에 전달했다. 한교봉과 한교총은 공동 모금을 진행해 모은 구호금으로 라오스 이재민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천영철 한교봉 사무총장은 "2차 구호금은 한인 선교사 등에게 전달해 이재민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단기간에 복구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라오스복음교회 총회 캄땡 코운타판야 부총회장 "희망 잃은 이재민들... 한국교회 관심 절실"

"땡 봉괴로 라오스 아타푸주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농사짓는 이들에게 땅이 사라졌으니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지난 13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의 라오스복음교회(LEC) 총회 본부에서 만난 캄땡 코운타판야(사진) 부총회장은 아타푸주 이재민 캠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캄땡 코운타판야 총회장은 캐나다로 이주한 라오스인을 대상으로 한 부흥회 인도를 위해 출국했다.

코운타판야 부총회장은 "사고가 난 지역에 33가족, 128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면서 "이들은 현재 세남노이의 돈두교회와 반복교회, 땡빌라이교회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했다. 사고가 난 뒤에도 아타푸주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30여km의 비포장도로를 오가며 천막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내린 폭우로 세남노이 이재민 캠프로 가는 길이 끊어지면서 이마저도 당분간 중단됐다. 코운타판야 부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보내준 긴급구호자금에 감사드리며 생필품을 구입해 배나 헬리콥터 편으로 이재민 캠프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LEC는 2030년까지 라오스에 600개의 교회를 더 세우고 기독교인 비율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902년 스위스형제교단 소속 의료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LEC는 미국 '크리스천 앤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C&MA)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사역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1975년 8월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활동이 대폭 제한되는 등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현재 라오스 전체 인구 690여만명 중 기독교인(가톨릭 포함)은 3% 남짓으로 추산된다. 현재 LEC 산하엔 900여개의 교회가 있다. 이 가운데 70%가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자체 신학교가 없어 목회자들이 태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에서 신학 수업을 마친 뒤 안수를 받고 있어 목회자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타푸주·비엔티안(라오스)=글·사진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한국교회가 쪽방촌에 전한 사랑의 메시지, "행복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

21일 한국교회봉사단·한국교회총연합, 동자동 500 가정에 한가위 선물 전달 행사 가져

입력 2018-09-22 09:27



최기학 한국교회총연합 공동 대표회장(왼쪽)과 정성진 한국교회봉사단 공동 대표회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한 가정을 찾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선물 봉투에 도시락과 양말을 한 개씩 넣으시면 됩니다. 양말은 남성과 여성용이 다르니 봉투에 표시를 해 두셔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성민교회 본당에 모인 자원봉사들이 안내를 듣자 일사불란하게 포장에 나섰다. 분주한 이들의 표정에선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가위 사랑의 선물 나눔 행사는 쪽방에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는 일부터 시끌벅적하게 시작했다. 양 기관은 쪽방 500곳을 방문해 한국교회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나눴다.

포장과 전달에 참여한 이들은 서울 은평성결교회와 경기도 거북한빛광성교회 교인들이었다. 협소한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포장을 한 봉사자 60여명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포장을 마친 뒤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좁은 골목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길 반복했다. 봉사자들은 주민들의 안내를 받아 어두침침한 쪽방을 방문해 선물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뜻밖의 손님을 맞은 주민들은 반색했다. 정신분열증으로 투병 중인 김성근(59)씨는 "취미가 그림그리기인데 머리가 많이 아파 작업을 이어가는 게 쉽질 않다"면서 "쓸쓸하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방문해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셔서 무척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교봉과 한교총 공동 대표회장들도 심방에 동참했다. 정성진 한교봉 공동 대표회장은 "빌딩이 높아질수록 이면의 그림자는 짙고 깊어진다"면서 "동자동에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들의 형편을 살피는 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최기학 한교총 공동 대표회장도 "한가위가 가난한 이웃들에겐 오히려 쓸쓸한 시간이 되기 쉽다"면서 "교회가 이 분들과 함께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말했다.

동자동은 1200개의 쪽방이 흩어져 있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이다. 한교봉은 7년 전부터 추석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의 대표적 쪽방촌인 동자동과 돈의동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교총과 협력해 한국교회 전체의 행사로 규모를 확대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지진·쓰나미 피해 막막한데... 전염병 공포까지 엄습

한교봉·한교총 실사단, 인도네시아 팔루 현장 방문 르포

입력 2018-10-16 00:01



팔루 주민들이 14일 오전 지진으로 뒤들리면서 곳곳이 내려앉은 도로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다.



역상화 현상으로 사라져 버린 조노 마을을 찾은 이웃마을 주민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

일상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앞에선 더욱 그렇다.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7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를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대표회장 이영훈 정성진 고명진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전



계현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실사단과 함께 지난 13일 찾았다.

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이었다.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시간은 그날에 멈춰선 듯 보였다. 일행을 맞은 건 어둠에 잠긴 거리와 굵은 빗줄기였다. 일상이 깨진 자리는 반복되는 정전으로 인한 암흑과 여진이 남긴 공포가 대신했다. 거리는 조용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곳곳에 마련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그나마 그곳에 있어야 구호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학교들이 이골던 지역 상권은 이들이 피난을 떠난 뒤 완전히 마비됐다. 식료품을 살 곳도, 끼니를 해결할 식당도 눈에 띄지 않았다. 텅 빈 거리를 지나는 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개와 고양이들이 전부였다. 그나마 시내에 남은 이들은 팔루의 관광명소이던 포 누렐레 다리 근처에 모여 멍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이 다리는 이번 지진으로 몇가닥처럼 휩 뒤 완파됐다.

팔루의 유일한 한국인 선교사인 류제국(55) 목사는 “우기도 아닌데 이런 폭우가 내리는 것도 다 자연재해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지진이 발생한 후 팔루 사람들은 깊은 트라우마 속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튿날엔 다행히 비가 그쳤다.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기온이 치솟았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찍었다. 여전히 수천 구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주민들은 무더위가 전염병을 불러올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현지인 의사 4명과 의료봉사를 온 최영미(48·여) 의료선교사도 전염병이 제2의 재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곳곳 마을은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고 아예 공동묘지로 지정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 찾지 못할 뿐 불과 2~3m 아래에 뒤엉켜 있을 시신들이 부패하면 반드시 병이 생긴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지진에선 땅이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액상화 현상이 피해를 키웠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이 공개한 인공위성 영상엔 한 마을이 갑자기 강물처럼 흐르다 이내 땅에서 솟아 올라온 토사가 마을 전체를 삼키는 장면이 나온다. 액상화 현상으로 팔루 인근 마을 두 개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반경 2km 너비의 조도 마을이 사라진 곳에서 고모가 살던 집의 흔적을 찾던 할리(49)씨는 “마을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옅 마을 옥수수 수밭이 흘러내려 왔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고모 가족은 모두 실종됐다”며 참담해했다.

다른 액상화 마을인 뽀또본 마을에선 목숨을 건진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인근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는 이르판(36)씨는 자신의 집 양철지붕을 뜯어내고 있었다. 대피소에 사용할 요량이었다. 그는 “지진이 날 때 온 가족이 함께 있다 기적적으로 모두 목숨을 건졌다”면서 “하지만 1만3000명에 달하던 주민 중 60%는 죽거나 실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살려 달라’고 외치던 그날 밤의 울부짖음이 너무 생생해 괴롭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산 사람들은 희망을 꿈꿨다. 한 대피소에서 만난 사리(17)양은 “어서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뽀또본 마을의 이웃 9가정과 함께 공터에 텐트를 세워 지내고 있지만 많이 불편하다”면서 “그래도 살아났다는 게 감사하고 빨리 졸업해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날 오후 실사단은 팔루 시내에서 남쪽으로 35km가량 떨어진 스망기 마을을 찾아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 마을은 산골 오지에 있어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실사단은 1t 분량의 쌀과 라면, 식용유, 소금, 설탕을 담은 구호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이 마을 이장 리두완(52)씨는 연신 감사하다고 했다.

주민들은 실사단과 취재진을 향해 “뜨리마 까시”라고 연호하며 두 손을 힘차게 흔들었다. 류 선교사는 “우리말로 ‘은혜를 받았습시다’라는 인사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사단을 이끈 천영철 한교봉 사무총장은 “많은 재난 국가를 방문했지만 팔루처럼 초토화된 곳은 보지 못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교봉과 한교총이 한국교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팔루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 더욱 큰 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태안유류피해 교인들, 11년 만에 감사예배 "이제 소중히 지켜야"

한국사회봉사단 후원으로 바닷가 6개교회 성도 100명 참석

18.12.06 12:21 | 최종 업데이트 18.12.06 12:21 | 신문용(shin0635)



▲
© 신문용



▲
© 신문용



"우리들이 그동안 환경의 소중함을 잊고 경시했던 모습에 경종을 울려주었고 우리들의 손으로 검은기름을 걷어냈고, 드디어 우리가 살렸으니 소중히 지켜야 한다."



▲
© 신윤용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11년을 하루앞둔 6일 11시부터 충남태안군소원면 만리포 해변에 위치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태안유류피해 11주년 감사예배가 태안 피해지역 교회연합회 주관과 한국교회봉사단 후원으로 열렸다.

이광희 목사(의향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유성상 목사(만리포교회)의 기도, 사고 당시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인 김종생목사(빛과소금 대표)의 "자연스러움"이라는 설교와 김종남 목사(파도교회)의 축도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감사예배는 허베이 원유유출 사고의 핵심 피해지역에 위치한 파도교회, 만리포교회, 의향교회, 성신제일교회, 학암포교회, 신두교회 등 6개교회는 태안피해지역 교회연합회를 구성하고 11년만에 한자리에 다시모여 살아난 만리포해변에서 123만자원봉사자와 70-80만에 해당되는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쪽방촌에 날아든 성탄의 소식 "예수님 오신다면 여기에"

최상경(cs_young@goodtv.co.kr)

등록일:2018-12-19 19:04:56 | 수정일:2018-12-19 20:48:56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즐거움을 선사했다.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문화공연으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에 위로를 건네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훈훈함이 가득했던 쪽방촌 현장을 담아봤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성탄절 사랑나눔' 행사가 열렸다.©데일리굿뉴스

성탄절 맞이 나눔 현장..."흥겨움 가운데 복음 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살을 에는 추위 앞에 장사 없지만 쪽방촌 주민들의 올 겨울 나기는 유난히 혹독하다. 계속되는 매서운 한파에 쪽방촌의 분위기도 한기로 더 적막했다. 바로 코앞인 서울역만가도 휘황찬란한 장식들이 즐거운 성탄분위기를 연출하지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비좁은 이곳은 굳게 닫힌 문과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함만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런데 오늘(19일)만큼은 쪽방촌 사람들에게 활기가 불어 넘쳤다.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한 성탄절 문화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300석이 넘는 좌석을 꽉 메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한교봉 사무총장 천영철 목사는 "매년 성탄절을 맞아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호응이 남다른 것 같다"면서 "공연 시작 전부터 만석이 된 건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가 불황이고 이들의 즐길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하늘풍물소리)서부터 국악찬양(참 좋았더라), 가요노래교실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돼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몇몇 주민들은 신나는 캐럴이나 신명나는 민요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도 했다. 공연에 나선 이들 역시 마음이 즐겁기는 마찬가지였다. 거룩한빛광성교회 풍물놀이팀 단원 권 모씨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며 웃음지었다.

한국교회의 따뜻한 메시지에는 주민들이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교봉 공동대표회장 정성진 목사는 청중들을 향해 “2018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여깁니다”라는 대답이 객석에서 울려 퍼졌다. 정 목사는 “늘 따뜻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믿고 추운 겨울을 이기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쪽방촌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내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이 활기찬 모습 이면에는 쪽방촌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행사에서 만난 나 모씨(47)는 그야말로 요즘 한파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성민교회 성도이기도 한 그는 “곰팡이가 피고 날이 추워져 몸이 아프다”며 고개를 계속 저었다. 3년 째 이곳에서 겨울을 맞고 있는데도 매번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그는 “추워지면 환경이 더 악화돼 힘은 들지만, 오늘 같은 행사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며 자신의 한파 극복방법을 소개했다.

고시원 화재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이처럼 직접 들어본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쪽방촌 5군데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3,197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2%)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나머지가 65세 이상 홀몸노인(34%), 장애인(10%)인 취약계층이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주택에서 저체온증, 동상 등 추위로 고통을 호소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83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쪽방촌 주민으로 추정된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성복 목사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셨다. 한국교회가 참 사랑을 사회에 전달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쪽방촌이라고 본다”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쪽방촌에 사는 모든 이들이 느끼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교봉을 비롯한 개교회들은 7년 전부터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온정을 건네고 있다. 먹거리를 전달하는 반찬나눔 사역부터 성탄절, 신년 등 굶직한 기념일엔 공연과 선물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날 행사 후에도 참석한 주민들에게 성탄카드와 선물상자를 전달했다.



▲ 성탄절을 맞아 한교봉과 한교총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성탄선물을 전달했다. ©테일리굿뉴스



한국교회봉사단은

섬김의 사역을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로 엮어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자”는 기치 아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등록)와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외교부 등록)로
구성된 연합기관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재해와 아픔이 있는 한반도와 지구촌에 함께 합니다.

2018년 한국교회봉사단 연차보고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월드디아코니아

발행일 : 2019년 2월 21일

발행처 : 한국교회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705호

TEL : (02)747-1225 FAX : (02)764-1225

E-mail : kd@koreandiakonia.org

국문홈페이지 <http://www.koreandiakonia.org>

영문홈페이지 <http://en.koreandiakonia.or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D1225>

Korean Diakonia Annual Report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자”